지혜의 말씀

불기 2569년 2월 / 통권 527호

법구경 (法句經)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리라.
수레바퀴가 황소발굽을 따르듯이.

心爲法本 心尊心使 심위법본 심존심사
中心念惡 卽言卽行 중심념악 즉언즉행
罪苦自追 車轢于轍 죄고자추 차력우철

- 법구경 게송 1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열 가지 옳지 않은 법 / 운성스님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 8
『법구경』 해설 - 1 / 자경스님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2월 법회 및 행사 · 14

알림마당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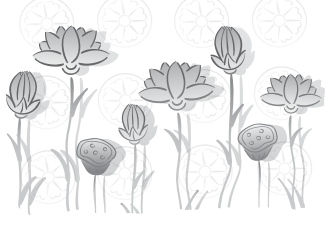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천일기도 안내
설날합동제사 안내
을사년 정초기도 안내
입춘·삼재소멸기도(들삼재-돼지,토끼,양) 안내
삼보사찰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편집장 / 자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열 가지 옳지 않은 법
(십사비법 十事非法)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인도의 불교 시작지는 비교적 동부에 해당하는 바이샬리, 왕사성, 카필라 등이었다. 부처님 당시 논설 제일의 '카차야나 존자'가 비교적 많은 지역을 포교했는데 이로 인해 서부지역으로 불교가 전해져서 동부와 서부 두 지역의 불교가 상당한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부처님 열반하신 100년경까지를 근본불교, 원시불교 시대라 하고 이후를 부파불교 시대라 한다. 원시불교 내지는 근본불교 시대엔 부처님의 가르치심의 원형을 지키며 순수상태로 이어졌지만 100년 이후가 되자 각 지역과 집단의 특성

에 의해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한다.

초기의 스님들은 음식을 탁발해서 해결했지만 겨울이 있는 나라나 깊은 산중에서는 탁발에 의존하고 살 수 없었기에 직접 만들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겨 근본불교 시대의 수행형태에서 변화가 불가피했다.

불타께서 열반하신 100년 뒤에 서부 지역에서 수행하던 '야사스' 라는 스님이 어느날 동부의 불교계를 돌아보다가 서부 스님들과 많이 다른 수행법을 보고 놀라서 이를 항의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동 서부의 여러 장로 스님들을 비사리성에 모아서 율장(계율)을 재정비하는 결집을 하게 되는데 이를 '제2 결집' 혹은 '칠백결집' 이라 한다.

제2 결집에는 동부 서부에서 7백 명 스님들이 모였는데 이 7백 명 스님들이 동부 스님들이 달라진 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옳지 못한 수행법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결의를 한다. 이때 7백 스님들이 결의한 사항을 '십사비법(十事非法)' 이라 한다. '열 가지 옳지 않은 법' 이라는 뜻이다.

이 결집에 함께하지 못한 스님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으며 동부의 스님들은 끝내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서부불교와 완전히 다른 양상의 동부 불교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부파

불교가 시작된 시점, 즉 종파가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

당시 인도 서부불교와 동부불교의 수행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분열의 시초가 되었는가를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

7백 스님들이 '열 가지 옳지 않은 수행법'이라고 결론지은 법은 1, 염사정(鹽事淨), 2, 이지정(二指淨). 3, 수희정(隨喜淨), 4, 도행정(道行淨). 5, 낙장정(酪漿淨). 6, 치병정(治病淨). 7, 좌구정(坐具淨). 8, 구사정(舊事淨). 9, 고성정(高聲淨). 10, 금보정(金寶淨) 등이다.

1, 염사정은 소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지정은 시간이 지나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수희정은 밥 먹고 나서 다시 더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도행정은 다른 곳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낙장정은 우유나 요구르트를 꿀이나 미숫가루를 타서 밥 대신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6, 치병정 치료를 목적으로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효소를 먹어도 된다. 7, 좌구정은 몸에 따라 방석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8, 구사정은 앞 사람을 따라 하면 허물이 되지 않는다. 9, 고성정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용서를 구하면 된다. 10, 금보정은 돈이나 금은을 보시받을 수 있다.

동부 스님들은 대부분 젊고 개혁적인 스님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서부 스님들은 나이 드시고 보수적인 장로 스님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가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면 스님들 수행 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나이 드신 장로들은 근본불교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었다.

사실 이 십사비법을 오늘의 불교계 시각으로 살펴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헛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소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느냐 마느냐, 밥을 두 번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을 보시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으로선 도무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당시의 스님들께선 그렇게 생활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치열하게 논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동료들을 챙기셨던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종교인의 자기반성과 자기 성찰이 이 정도는 되어야 감히 부끄럼 없는 성직자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법구경』 해설 – 1

눈이 멀 때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은 짝꾸빨라 장로

자경스님 / 대광사 주지

부처님 당시 '마하빨라'라는 장자가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사람이 죽어서 저세상으로 갈 때, 아들딸이나 형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재산도 가져가지 못한다. 세속의 삶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나는 출가하여 비구가 되어야 겠다.'고 생각하여 부처님께 출가를 요청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빨라의 출가를 허락하고, 은사를 정해 5년 동안 계율과 승가(僧伽)의 습의를 익히게 했다.

마하빨라는 5년을 보낸 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

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60명의 비구와 함께 길을 떠나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에서 200km 가량 떨어진 마을에서 안거를 시작했다.

이때 마하빨라는 3달의 안거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장로에게 눈병이 생겨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의사가 눈에 안약을 넣고 반드시 누워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지만 '등을 땅에 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고는 더욱 정진을 배가시켜 나간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났을 때 마하빨라 장로는 눈이 멀어버린 것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소멸되었다. 그는 순수 위빠사나 수행으로 아라한이 된 것이다.

장로가 우안거가 끝나자 부처님을 뵙기 위해 사위성으로 돌아와 오두막집에 머물고 있을 때, 먼 나라에서 거주하던 일단의 비구들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마하빨라 장로를 만나보자고 합의를 했다. 그날 저녁 갑자기 몰려온 소나기가 한밤중이 지나서야 멎었다. 마하빨라 장로는 새벽이면 항상 뒤뜰에 나와 경행을 하였는데, 어젯밤 내린 비로 많은 벌레가 젖은 땅에서 기어 나왔다가 경행하는 장로의 발에 밟혀 죽었다. 날이 새자 어제 장로를 만나보기로 한 비구들이 오두막집에 당도하여 숱한 벌레가 밟혀 죽어 있는 광경을 지켜보고 부처님께 고한다.

"부처님이시여, 마하빨라 장로는 경행을 한답시고 많은 벌레를 밟아 죽였습니다."

"그가 벌레를 죽이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대들이 그가 한 일을 정확히 보지 못했듯이 그도 벌레를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아라한에게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아라한과를 성취할 공덕이 있는데 어째서 눈이 멀게 된 과보를 받았습니까?"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가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마하빨리 장로의 전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아주 오랜 옛날 한 의사에게 시력을 잃은 한 여인이 눈병을 치료하러 와서 의사에게 간청한다.

"선생님, 제발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치료해 준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 눈을 전처럼 잘 보이게만 해 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과 딸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약을 만들어 단 한 번 발라주자 그녀의 눈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력을 되찾자 마음이 달라져 약속을 져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거짓말을 한다.

"전에는 눈이 약간 아팠는데 지금은 전보다 더 심하게 아파요."

의사는 '이 여자가 아무것도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치료비는 필요 없으니 그녀의 눈을 다시 멀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연고를 만들어 와서 그녀에게 눈에 넣고 문지르라고 한다. 그녀가 약을 넣고 문지르자 등불이 꺼지듯이 눈이 멀어버렸다. 그때의 의사가 지금의 마하빨라고 과거생에 지었던 그 악업의 과보로 눈이 멀어졌다는 것이다.

법왕이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시고 앞(표지 뒷면)의 게송을 읊으신 것이다.

천일기도

■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9월 27일
■ 입재 : 1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동참금:100만원(분할납부 가능)

삼보사찰

■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 2월 8일(토) 오전 7시 구민회관(출발)
■ 동참금 : 5만원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대광사 2월 법회 및 행사

◈ **1월 29일 : 설날합동재사** 오전 7시 설법전

◈ **1월 31일 : 정초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2월 1일 : 입춘,삼재소멸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2월 3일 : 입춘,삼재소멸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2월 4일 : 정초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2월 8일 : 삼보사찰 순례**

◈ **2월 12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2월 28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설날합동제사

■ 일 시 : 2025년 1월 29일(수) 오전7시 설법전

■ 동참금 : 영가 1위당 2만원

을사년 정초기도 안내

■ 2025년 1월 31일(금)~2월 4일(화) 오전10시 설법전

■ 동참금 : 가족축원 5만원

대광후원회

(2024.12.19.~2025.1.16.)

황두관 1만원	박정진 1만원	윤숙희 2만원	조한분 5만원
이순남 1만원	선말수 1만원	구영근 2만원	배동환변호사 5만원
정진이 1만원	변창인 2만원	이우권 3만원	원광한의원 10만원
송성수 1만원	김병문 2만원	구자민 3만원	이병정열정영어 20만원
박미애 1만원	이인숙 2만원	정연수 3만원	㈜카텍홀딩스 30만원
조홍준 1만원	홍승운 2만원	정대식 5만원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9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2024.12.19.~2025.1.16)

대광사 바라밀회 10만원

♥ **지혜의말씀 후원**(2024.12.19.~2025.1.16)

구명희 50만원 / 김영우 10만원 / 주정수 10만원 / 강동완 3만원
송민기 1만원 / 청향심 1만원 / 조홍준 1만원

♥ **설담장학회**(2024.12.19.~2025.1.16)

주지스님 10만원 / 김양의 20만원 / 이희숙 10만원 / 문미화 10만원
이봉희 5만원 / 진병천 3만원 / 구자민 2만원 / 변지오 2만원 / 이유림 1만원
이유정 1만원 / 김순남 1만원 / 이경화 1만원 / 조홍준 1만원 / 이순남 1만원

입춘·삼재소멸기도(들삼재-돼지,토끼,양)

■ 일 시 : 2025년 2월1일(토) ~3일(월) 오전10시
■ 동참금 : 입춘(3만원) / 삼재소멸(1인당 2만원)

진해대광사 반야찬불단 / 시라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반야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대광사 수미산악회 회원모집

- 매달 3주 토요일 산행
  (단, 사중 행사가 있을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회비 5천원 - 문의 및 접수 ☎545-9595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화엄회(꽃꽂이) 회원모집

- 월 2회 수업(일정변동).

佛紀 2569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3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5년 2월 25일~3월 19일	2025. 3. 25(화) ~ 12월중 (1년 과정 - 2학기제)
수 계 일	2025년 3월 22일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접수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중순까지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신도증발급, 수계비, 법복 포함)
불교대학 1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법복 포함)
불교대학 2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총 45만원(학기별 납부가능)
불대계좌 : 수협 921-61-001749 대광사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